

폭염·풍수해 대비 안전시설 관리 실태 점검

- 경기 평택 지역 무더위쉼터, 지하차도, 빗물받이 등 시설 점검(7.7.)

- 행정안전부는 7월 7일(월) 경기도 평택시를 방문해 폭염·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.
- 이번 점검은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,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.
-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지제2동 마을회관을 방문해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쉼터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,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
- 이어, 지난해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비상대피 유도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, 평택역 일대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침수 예방 대책도 살폈다.
-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“정부는 폭염과 풍수해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며,
-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하기,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범석 (044-205-52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승우 (044-205-5219)
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 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서기관 손승남 (044-205-6369)